작품 기획안

■ 장르

-드라마, 판타지

■ 기획의도

- 달리다굼은 성경에서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소녀를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 하신 말씀이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라며, 외치신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여기서 '달리다'는 '소녀야', '굼'은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달리다굼, 죽지 못해 잠든 기억>은 첫째,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피해생존자로서의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함이다. 그 기억에 대한 진실이 남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인정됨으로, 생존자들의 회복이 시작된다. 둘째, 성폭력 가해자를 이해, 용서 혹은 옹호의 목적은 일절 없다. 단, 가해자가 '가해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본 시나리오에 담음으로 "예방"의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로그라인

- 작가 지망생 하선(29. 여)이 할머니 순자(82)의 장례를 마친 후, 돌아가신 그녀 집을 정리하기 위해 남자친구 주영(27. 남)과 여행을 가게 된다. 여행길에 떠오르는 할머니와의 기억들에 대한 글을 쓰는 이야기이다.

■ 시놉시스

작가가 되기까지 하선(29,여)에게 영향을 많이 준 할머니 순자(82)의 장례식으로 시작한다. 화장 후, 도착한 순자의 집에서 잊었던 기억의 존재를 알게 된다. 그 기억에 대해 그녀는 글을 쓰기로 한다. 그날 이후 그녀는 환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가르치는 학생에게 주근깨가 옮는가 하면, 남자친구의 스킨십을 통해서도 주근깨가 자신 몸을 타고 올라오는 듯하다.

그러던 중, 할머니 집을 정리하러 가게 된다. 남자친구 주영과 함께 서울에서 충청남도 예산까지 내려가며, 잊었던 기억들이 떠오른다. 작가의 꿈을 갖게 된 이유와 주근깨가 가득했던 동네 사고뭉치 주영(12,남)에 대한 뒤엉킨 기억들이 하선을 괴롭히고 고립시킨다. 결국 여행 도중 주영마저 제쳐두고 혼자 도착한 할머니 집. 그녀는 할머니 집을 정리하다 마지막 그날에 기억을 정확히 마주하게 된다. 주영(12,남)이라는 아이에게 당한 성폭력. 해리성 기억 상실로 그날의 기억이 머릿속에서는 잠들었는지는 몰라도,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사건에 대해 알게 된 순자. 끝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 것은 어린 하선을 떠나보내는 것이었다. 그날의 기억을 잠재우고 서울로 떠난 하선. 기억 상실로 그녀는 잠시라도 행복한 가정과 추억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었음을 깨닫는다. 하지만 이젠 담대히 모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하선이기에, 과거의 기억으로 자신을 고립시키기보단, 미래를 주영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결국 하선은 그녀의 소설 속 주인공에게 해피 엔딩을 준다.